

렌터카 사고로 매년 30명 사망?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가운데 12% 차지 경찰 "일부 잘못된 보도로 도민 혼란 부추겨"

제주가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전체 교통사고의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교통사고는 2016년 4434건(사망 80명·부상 6885명), 2017년 4378건(사망 80명·부상 6602명), 2018년 4239건(사망 82명·부상 6611명)이다. 이 가운데 렌터카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6년 526건(사망 7명·부상 947명), 2017년 521건(사망 7명·부상 879명), 2018년 513건(사망 6명·부상 905명)으로, 최근 3년 평균 교

통사고 중 건수는 12%, 사망자는 8.3%, 부상자는 13.6%에 머물렀다.

하지만 방송 등 일부 언론에서는 해마다 제주에서 렌터카 교통사고로 30여명이 사망한다는 등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의 보도를 내보내 국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보도는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106명) 비율이 제주가 41.2%(34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를 잘못 이해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 마저도 기간이 7~8월에만 국한

돼 있는 수치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교통사고도 무시하지 못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전방주시 태만이나 주의력 부족 등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라며 "렌터카가 제주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는 오히려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경찰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0월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일주도로와 평화로, 번영로에 '암행순찰차'를 도입해 난폭·양체운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렌터카에 대해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교육과 더불어 운전자에게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밤에도 즐기는 물놀이 21일 밤 제주도 이호태우해수욕장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야간 물놀이를 하며 무더위를 날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검찰, 여교사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어제 제주지법 결심공판 검찰 "중대하고도 잔혹" 변호인, 상해치사 주장

제주에서 종교·사회적 멘토 관계를 빌미로 접근해 2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모(4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의 혐의는 살인과 특수 상해, 사기 등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0시 40분쯤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약 30분간 초등학교 교사인 A(27·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복부 좌상에 의한 흉장 파열'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아울러 김씨는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폭행과 돈을 갈취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모두 김씨가 종교 혹은 사회적 멘토를 빌미로 접근한 이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우체부'라고 말하면서 A씨에게 접근했다"며 "A를 종속시킨 뒤에는 장시간에 걸쳐 폭력과 재산 갈취, 노동력 착취가 이어졌고, 결국에는 A씨를 구타해 살해하는 중대하고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특히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커녕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회색자 행세를 해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A씨를 살해할 의도 있었으면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며 "또한 범행 이후에는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는 "나의 실수로 A씨가 잘못된 것을 애절한 마음으로 사죄한다"면서도 "때린 적은 없었는데, (그냥) 밟았는데... 마음이 괴롭다"며 살해의 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청취한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개최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밀린 임금 달라"

50대 4층 건물서 고공시위

22일 서귀포시 동흥동 소재 한 공사장에서 50대 남성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시너를 소지하고 고공시위를 벌였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근로자 A(50)씨가 동흥동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4층에서 체불임금(약 700여만원)에 따른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너 2ℓ를 소지한 상태로 농성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응급상황에 대비하며 A씨 설득작업에 나섰다. A씨는 낮 12시 25분쯤 건축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키로 약속하면서 지상으로 내려와 상황이 일단락됐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22일 새벽에 내린 기습폭우로 제주도 한림읍 옹포리 소재 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1000t에 이르는 배수작업을 진행했다.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22일 새벽 기습 폭우... 곳곳 침수 피해

북부·서부 집중... 26건 침수

22일 새벽 제주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새벽부터 제주 북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에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20분을 기해 서부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하고 10분 후에는 북부지역으로 확대했다. 비가 더 강해지자 오전 6시20분에는 호우경보로 대체했다.

이날 오전 7시50분 기준 강수량은 제주도 108.3mm, 외도 105mm, 유수암 55mm, 한림 76mm를 기록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오전 7시10분 기준 제주시는 65.6mm, 외도는 오전 6시 기준 시간당 50.5mm의 폭우가 내린 것

이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 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서류와 합류되면서 대기불안정이 강화돼 기습적으로 폭우가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22일 오전 5시35분쯤 제주도 한림읍 옹포리 소재 주택이 침수돼 출동한 119에 의해 1000t에 이르는 배수작업이 이뤄졌으며, 오전 6시29분쯤 제주도 영평동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오전 6시5분부터 9시58분까지 인원 80명·장비 32대를 동원, 총 26건의 침수 관련 소방활동을 벌였다. 송은범기자

中 불법채자 살인미수 입건

제주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흥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채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국인 불법채류자 A(4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8시 20분쯤 제주도 삼도2동 소재 숙소에서 또 다른 중국인 불법채류자 B(44)씨의 북부와 허벅지 등을 흥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석기자

"환매권 통지 안한 LH, 5억원 배상해야"

봉개 국민임대주택 사업 원토지주 33명 손해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주도 봉개동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원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이익진 부장판사)는 봉개동 국민임대주택 사업 원토지주 33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H가 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LH는 봉개동 소재 3만1382㎡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지난

2004년 10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어 2007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도 취득했다.

하지만 원토지주 33명은 LH가 토지를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사업에 활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LH는 도로 개설과 지장물 철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를 이용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업 변경승인이나 지장물 철거는 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LH는 토지 취득 5년째인 2014년 2월까지 해당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사진 반납시 10만원 지급

오는 8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사진 반납하면 1회 한정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제주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사진반납 지원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직접 면허증을 반납하고,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마늘 · 양파 · 양배추 농가에게 알립니다

→ 하하농법이 해결이다!!

마늘

- 금년도 마늘 평당 10kg 생산농가가 있어 화제! → 대정읍 하모리
- 김OO씨는 2,400평에 하하농법으로 재배한 마늘이 24,000kg 생산되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
- 밑거름 : 이노페스 + 복비(21-17-17)
- 추비 : 히토라프 + 복비
- 비대 : 히토라프
- ※ 이노페스를 사용시 유기질 비료 또는 퇴비, 토양개량제(소석회 또는 생석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파 · 양배추

- 묘종을 정식전에 하하농법인 브이(V)패스로 침치 또는 침전 후 정식 → 정식후 뿌리가 내리면 브이(V)패스로 엽면시비 해준다.
- 브이(V)패스 : 500ml 1병 12.5말로 희석해준다
-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및 감염방지에 효과가 있다. (양배추 뿌리혹병, 마늘 잎지 썩음병, 감자 시들음병 등등.)
- ※ 대정읍 신도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올 농사도 하하농법으로 하하 웃는 농민과 함께하는

곰탕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 · P 010-2633-5349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 집초의 경감
- ▶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 높은 저장성
-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 강력한 라임효과
- ▶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련 영업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